

# 대한제국기 유림의 尊聖運動과 그 의미\*

노 대 환\*\*

## 목 차

- I. 머리말
- II. 갑오개혁기 교육제 개편과 유림의 동향
- III. 尊聖疏廳 설치와 상소 활동
- IV. 尊聖運動과 『尊華錄』, 『大東正路』 간행
- V. 맺음말

**국문초록** | 본고는 대한제국기에 일부 유림이 중심이 되어 전개했던 尊聖運動을 고찰한 연구이다. 존성운동은 호서의병에 참여했던 유림이 주도한 유학 진흥운동이다. 이들 유림은 국모 시해와 같은 패륜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문명개화론이 확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유학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보아 성균관 제도의 복구 등을 통해 유학을 재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1899년 고종이 우리의 종교인 유교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조령을 내리자 유림은 이에 고무되어 존성을 위한 출판 작업에 나서 1900년에 『尊華錄』, 1903년에 『大東正路』를 간행하게 되었다.

존성운동은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국권이 피탈되기 전에 시도된 유학 진흥을 위한 유림의 적극적인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881년 대대적으로 척사운동을 전개한 이후 유림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 고종이 황제 지위에 오르자

---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 F-2020S1A6A3A01054082)

\*\* 盧大煥,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qwert@dongguk.edu

투고일: 2021. 5. 12. 심사완료일: 2021. 5. 27. 게재확정일: 2021. 6. 6.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0..187>

고종에게 큰 기대를 걸고 존성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고종은 유학을 진흥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존화록』과 『대동정로』가 각각 호서유림과 영남유림이 주도로 편찬되는 등 유림도 결집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존화록』과 『대동정로』의 내용은 전통 유학을 고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결과 존성운동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이에 실망을 느껴 사상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유림이 속출하였다. 존성운동에 참여했던 이들 가운데도 여러 인사들이 계몽주의자로 전신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연구 과제이다.

**핵심어** | 湖西儒林, 尊聖, 尊聖疏廳, 文明開化, 『尊華錄』, 『大東正路』

## I. 머리말

1894년은 한국근대사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일본은 조선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6월 21일(양 7월 23일) 경복궁을 무력 점거하는 이른바 갑오변란을 일으켜 고종을 유폐하였다. 곧이어 25일에는 일본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豊島 앞바다에서 청나라 군함에 기습적인 공격을 가해 전쟁을 도발하였다. 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金弘集을 수반으로 한 친일 개화파 내각을 수립하였으며 김홍집 내각은 군국기무처를 설치한 후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군국기무처 설치 이후 약 3개월 사이에 200여 건의 새로운 법령이 공포될 정도로 광범위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조선 사회에는 문명개화론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청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후 조선 내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개혁을 주도하였다.

유림은 일본의 지원 하에 수립된 친일내각에 의해 추진되는 개혁안에 심한 거부감을 가졌지만 집단적으로 반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895년 명성왕후 시해 사건이 발생하고 이어 단발령이 시행되자 의병을 일으켜 개화파 정권과 이들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일본에 정면 대항하였다. 의병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해산했으나 1896년 아관파천으로 정국이

급변하여 친일과 내각이 무너지고 친러파 내각이 들어서면서 갑오개혁도 종식되었다.

의병 해산 이후 유림은 대응 방향을 새롭게 설정했는데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柳麟錫과 그 문인들이 주도했던 '保華'운동이다. 이들은 국내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요동 지역에서 중화문명을 보존하며 때를 기다린다는 전략을 세웠다. 다른 하나는 호서의병 출신이 유림이 주도한 상소운동이다. 이들은 명성왕후 시해 사건에 대한 '復讐'를 표방하며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집단으로 소를 올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고찰한 尊聖운동도 이러한 상소운동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것이었다.

존성운동을 주도했던 유림은 국내 인사들이 일본 측과 결탁하여 자행한 명성왕후 시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폐악한 일이 발생한 근본 원인이 유학의 부진에 있다고 보아 유학을 진흥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존성운동은 대한제국기 유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이었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존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전개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Ⅱ. 갑오개혁기 교육제 개편과 유림의 동향

일본은 1894년 6월 21일(양 7월 23일) 경복궁을 무력 점거하는 이른바 갑오변란을 일으켜 고종을 유폐하고 대원군을 추대하였다.<sup>1)</sup> 이를 계기로 집권한 개화파 세력은 6월 25일(양 7월 27일) 軍國機務處를 설치한 후 광범위

---

1) 날짜는 공식적으로 양력이 사용된 189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은 음력, 이후는 양력으로 표기하였다.

한 개혁에 나섰다. 개혁안 가운데는 교육개편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기존의 유학 교육을 신학문으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였다.<sup>2)</sup> 교육개편안의 기본구상은 6월 28일(양 7월 30일) 군국기무처에서 의결한 관제개정안에 나타나 있다. 그에 따르면 국내 교육과 학무에 관한 행정은 신설된 學務衙門에서 맡도록 하였고, 成均館及庠校書院事務局·專門學務局·普通學務局·編輯局·會計局 등 4개의 국을 학무아문에 소속시켰다. 교육은 전문학무국에서 중학교·대학교·기예학교·외국어학교를, 보통학무국에서 소학교·사범학교를 각각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균관급상교서원사무국에서 先聖과 先賢의 祠廟 및 經籍 사무를 관장케 하였다.<sup>3)</sup> 한편 7월 3일(양력 8월 3일)에는 과거를 통해 선비를 뽑는 것은 조정에서 정한 제도지만 虛文으로 실질적인 인재를 등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거제를 폐지하고 별도의 選舉條例를 제정하도록 하였다.<sup>4)</sup> 교육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과거제가 폐지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유학 재생산의 고리였던 과거제의 폐지는 유학계에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7월 28일에 개정된 학무아문관제에서는 학무대신이 成均館 知事を 겸임하고, 參議와 主事が 각각 大司成과 典籍을 겸직하도록 하였다.<sup>5)</sup> 성균관이 학무아문의 부속 기구임을 분명히 밝힌 조치이다. 이와 같이 교육 체제는 신식교육으로 완전히 재편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전통 교육기관인 성균관·향교·서원은 교육 기능을 상실한 채 제사와 서적 보관 업무만 맡는 기구로 격이 크게 낮아졌다.

1895년 2월 2일(양 2월 26일) 고종은 교육에 관한 조칙을 반포하여 교육

2) 갑오개혁기 교육개편안에 대해서는 具姬眞, 「갑오개혁 전후 전통교육제도에 대한 정책」, 『역사교육』 100, 2006, 208~213쪽 참조.

3) 갑오개혁에 대한 유림의 반응에 대해서는 吳瑛燮, 「甲午改革 및 改革主體勢力에 대한 保守派人士들의 批判的反應-그들의 上疏文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36, 1992 참조.

4) 『高宗實錄』 高宗 31년 7월 3일.

5) 『高宗實錄』 高宗 31년 7월 28일.

방향을 제시하였다. 고종은 옛사람들의 찌꺼기만 주워 모아 세상 형편의 큰 판도를 모르는 자는 세상에 아무런 쓸모도 없다면서 “虛名을 버리고 實用을 숭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학으로부터 근대적 실용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sup>6)</sup> 이후 학무아문의 관제는 다시 개정되었다. 3월 25일 학부관제를 반포하여 학부에 학무국과 편집국 2개의 국을 두고, 학무국에서 소학교·사범학교·중학교·외국어학교·전문학교 및 기술학교·유학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성균관을 비롯한 전통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교육개정 방침에 따라 1894년 말부터 日語學校와 英語學校 등이 차례로 개설되었고 1895년 5월에는 小學校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漢城師範學校官制를 공포하였다.

갑오개혁 이후의 변화는 동도서기론자였던 申箕善(1851~1909)조차도 “10년 전에 개화당의 이름을 얻는 자가 지금은 도리어 완고한 데 가깝다”<sup>7)</sup>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갑오개혁안은 보수 유림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다.<sup>8)</sup> 柳重勳(1832~1893) 문인들과 교유했던 淸風의 유자 李冕宰는 청상과부의 재가 허용, 반상 구분 없는 인재 등용, 의제 변통 등 의안 내용을 거론하면서 몹시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유림은 특히 의제 변통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崔益鉉(1833~1906)은 1895년 6월 정부의 개화정책을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의복제도를 시급히 복구해야 하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반면 교육제도 개편안에 대해 유림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참관 李載崑(1859~1943)이 1895년 6월 8일에 소를 올려 반포된 新制 가운데 성균관 개편안은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신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다면서 교육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6) 『高宗實錄』 高宗 32년 2월 2일.

7) 『承政院日記』 高宗 32년 5월 20일.

8) 『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2권, 『甲午日記』 갑오년 7월 12일.

9) 崔益鉉, 『勉菴集』, 「請討逆復衣制疏」(乙未 六月 二十六日).

풍기가 날로 개명하여 고금의 시의가 달라져 常法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신이 듣건대 세상의 여러 나라에는 모두 으뜸으로 삼는 敎가 있다고 합니다. 신은 어떤 교인지는 모르지만 각기 그 교를 가르치면서 서로 침해하거나 금지하지 않고도 自主自強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 어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斯文이 관건이 된다는 것은 살피지 않고 일절 무용지물로 여긴 후에야 다른 나라의 부강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sup>10)</sup>

이재곤은 성균관에 다시 관리를 두고 형식적인 규정도 정리하여 실속 있게 만든 후에 儒臣을 선발하여 스승으로 삼고 뛰어난 선비들을 골라 경술을 공부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내각에서 토의하게 하도록 요청하였다. 고종은 이재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각에서 그의 상소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내각의 검토를 거쳐 7월 2일(양 8. 21) ‘成均館官制’를 제정하여 성균관을 學部大臣의 관리 하에 두어 文廟를 받들고 經學科를 학습하는 기능을 맡도록 하였다. 경학과를 설치한 것이 특징으로 8월 9일(양 9월 27일)에 반포된 ‘成均館經學科規則’에서 경학과는 수업연한은 3년, 학습 과목은 사서삼경의 경학과 萬國史·萬國地誌·算術 등으로 규정하였다.<sup>11)</sup> 성균관에 교육 기능을 다시 부여하기는 했지만 이런 조치로 성균관의 기능과 권위가 예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는 없었다.

유림에게 교육제 개편은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명성왕후 시해 사건이 발생하고 연이어 단발령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할 여유가 없었다.<sup>12)</sup> 명성왕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 시행을 계기로 유림

10) 『承政院日記』 高宗 32년 6월 10일(양 7월 30일), “若曰 風氣日開 今古異宜 有不可膠守 常法云爾則 臣聞宇內各邦 皆有所宗教者 臣所不知何教 而各教其教不相侵禁 亦不害于自主自強之業 奚獨我東方 不顧斯文關鍵 一切弁髦而後 始可學他富強乎”.

11) 具姬眞, 앞의 논문, 2006, 214~215쪽.

12) 근기 남인계 학자 許傳의 문인 盧炳大(1856~1913)는 1895년 10월에 향교를 폐지한다는 소식을 듣자 성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허전의 조카 許運과 함께 상경하여 소를 올린 정도가 유림의 반응이다(鄭喬, 『騎驢隨筆』, 「盧炳大」).

은 종묘사직을 구하고 中華正脈을 보존한다는 두 가지를 대의로 내세우고 거병하였다. 하지만 의병은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고종의 해산 명령과 그에 이은 정부의 강제 진압 작전으로 해산되었다. 의병은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남겼다. 임금의 명이 없었는데 군사를 동원한 것, 관찰사와 군수를 자의적으로 처형한 것, 함부로 公貨를 사용한 것, 임금의 해산령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해산하지 않은 것 등이 그것이다. 고종도 해산 조치에서 의병들이 제멋대로 행동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로 인해 을미의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柳麟錫(1842~1915) 문인들의 경우 의병 논란에 대한 해명에 나서야 하였다. 문인 李正奎(1865~1945)는 관리를 죽인 죄, 국가재산을 멋대로 사용한 죄, 君命을 어겼다는 이유로 의병을 비도나 역당으로 규정하는 등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1896년 상경하여 고종에게 「義兵事情」을 올리고자 했으며, 1898년에는 「讐辨」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sup>13)</sup> 유인석의 족속 柳重岳(1843~1909)도 「九龍問答」에서 의병에 대한 논란을 해명하였다. 의병 활동으로 유림의 입지는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림의 입지가 약화된 상황에서 1896년 4월 『독립신문』의 창간과 함께 문명개화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신문은 ‘문명개화’, ‘문명진보’, ‘개명’과 관련된 각종 기사를 쏟아내면서 조선의 문명개화를 촉구하였다. 『독립신문』은 유학을 문명개화의 조류를 방해하는 요소로 보아 그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내보냈다. 창간 직후인 4월 25일자 논설에서는 조선 교육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문명개화 한 나라에서는 남녀 모두 학교에 가서 적어도 십 년 동안 각종 학문을 배운 후 비로소 세상에 나가 벼슬을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슨 벌이를 하든지 하는데 조선 사람들은 겨우 한문만 조금 배워

13) 琴章泰·高光植, 『儒學近百年』, 박영사, 1984, 109쪽; 박민영, 「玉山 李正奎의 생애와 활동」, 『지역문화연구』 10, 2011, 47~48쪽 참조.

그것만 믿고 총리대신 노릇도 하려고 하고 각 전 시정 노릇도 하려고 하며 육군 대장 노릇도 하려고 한즉 그 한문 학문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 아무 일도 하기 어렵다.<sup>14)</sup>

전통적인 한문 교육으로는 절대 문명개화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논설에서는 유럽의 모든 나라는 인문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학교에서 다양한 신학문을 배우는데 반해 청은 오랫동안 사서삼경만 공부하기 때문에 유럽에게 지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서양 각국이 부강한 이유를 알아 수많은 학교를 세워 인민을 학습시킨 결과 국가는 부강해지고 사람들은 보기 싫은 두루마기를 벗고 양복을 입으며, 나무신이나 짚신을 벗고 서양 가죽신을 신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선도 인민 교육에 매진하면 참 개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람마다 직업을 갖게 되어 노는 사람이 없고 모두 부귀하게 될 것이라고 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근대적 실용교육의 시행이라는 갑오개혁기 교육방침을 뒷받침하는 주장이다.

신학문과 비교하여 유학은 그 폐단만 집중 부각되었다. 12월 22일자 『독립신문』 논설에서는 사서삼경만 공부해서는 무용지인이 될 뿐이며 반드시 실제적인 학문을 배워 한 가지라도 잘해야 대접받으며 먹고 살 수 있으니 자제들을 학교에 보내 신학문을 배우게 하라고 촉구하였다. 양반들이 자제들에게 한문만 가르쳤다가는 나중에 신학문을 배운 지체 낮은 사람들 밑에서 천한 일이나 하며 지내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곁들였다.<sup>15)</sup> 개화론자들에게 유학은 문명진보의 걸림돌로 인식되었을 뿐이다.<sup>16)</sup> 이런 논설이 유럽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신학문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추세였다. 영남 남인계 학자 尹胄夏(1846~1906) 같은 이는 조금이라고

---

14) 『독립신문』, 「논설」, 1896년 4월 25일자.

15) 『독립신문』, 「논설」, 1896년 12월 22일자.

16) 『독립신문』, 「논설」, 1896년 8월 29일자.

재기 있는 자들은 거의 신학에 종사하고 있는데 학문적 기초가 없는 자들이 신학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탄식하기도 하였다.<sup>17)</sup>

신문은 유럽이 가장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예수교를 높이 평가하는 기사도 게재하였다. 8월 20일자 논설에서는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예수교는 착하고 참사랑하고 진실로 남을 불쌍하게 여겨 자기 돈을 들여가며 조선에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을 세워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칭송하였다.<sup>18)</sup> 12월 26일자 신문에서는 배재학당 학생들이 전날 예수 탄일 경축회를 열어 조선 인민이 개명하여 나라가 진보하기를 축수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학교가 몇 개만 있다면 세계에 두려워할 나라가 없을 것이라며 빨리 학교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였다.<sup>19)</sup>

신학문으로 교육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유학계는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호서산림 宋秉璿(1836~1905)의 문인 鄭璣淵(1877~1952)은 유학계에 가해지고 있던 비판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시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할 수 없다, 식견이 부족해 과거를 헤아리고 미래를 알지 못한다, 옛 것에 빠져 오늘에 통할 수 없고 상도에 빠져 변통할 수 없어 함께 시사를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정기연은 각각의 비판의 대해 나름의 논리로 반박하였다. 시의를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의를 모르는 사람은 眞儒가 아니라고 답하고, 식견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자가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에 의하였으니 그 손익을 알 수 있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에 의하였으니 그 손익을 알 수 있다. 혹시 주나라를 계승할 자가 있다면 비록 백세라도 알 수 있다”고 한 것을 근거로 들며 유자도 因革과 損益의 이치를 안다고 답하였으며, 변통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程子が “때에 맞추어 變易하여 도를 따른다”고 했다는 점을 들어 그렇지 않다고 하였

17) 尹靑夏, 『膠宇文集』 권7, 「答鄭孔厚」; 권오영, 「膠宇 尹靑夏의 학문연원과 사상경향」, 『남명학연구』 32, 2011, 121쪽 참조.

18) 『독립신문』, 「논설」, 1896년 8월 20일자.

19) 『독립신문』, 「잡보」, 1896년 12월 26일자.

다.<sup>20)</sup> 이러한 반박은 유학계에 가해지던 비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기 힘든 것이었으며, 적절한 것이었다고 해도 개인적인 소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별다른 반향을 일으킬 수도 없었다.

송병선은 1897년에 쓴 「長噫說」에서 문명개화론의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송병선은 人獸를 분정하고 華夷의 판별하는 의리는 우주를 지탱하는 원리로, 氣數에 변고가 생겨 잘못되면 반드시 성인이 나타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어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근래에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적하였다. 앞의 물이 빠지자 뒤의 물이 세계를 덮쳐 우리나라까지 몰려와 우주를 지탱하는 의리가 하루아침에 파괴되어 사람이 금수가 되고 중화가 오랑캐가 되었다는 것이다. 뒤의 물은 서양 세력을 말하는 것일텐데 송병선은 그들은 이익이 있으면 윤리도 거슬리거나 없애며, 천년 동안 미개했던 것을 열고 만민을 교화한다면서 의관문물과 예악형정을 침 뱉듯이 하여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고 탄식하였다. 송병선은 만약 성인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현의 글을 가지고 산 속으로 들어가 내 한 몸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며 그렇게 하면 비록 일세의 기운이 쇠퇴하는 것을 만회하지는 못해도 뒷날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sup>21)</sup> 자신의 한 몸을 지키는 것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유림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 Ⅲ. 尊聖疏廳 설치와 상소 활동

자신들의 존립 근거라 할 수 있는 유학이 부정당하는 상황에 직면한 유림

20) 鄭璣淵, 『琢窩集』(국립중앙도서관 古3648-70-29) 권11, 「今言辨」, 31-b.

21) 宋秉璿, 『淵齋集』 권18, 「長噫說」; 盧官汎, 「19세기 후반 湖西山林의 位相과 '正學'運動」, 『한국사론』 38, 1997, 104~105쪽 참조.

은 나름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였다. 의병운동을 전개했던 유림으로 한정한다면 대응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유인석과 그의 문인들의 경우처럼 국내 상황이 희망이 없다고 보아 요동으로 거처를 옮기는 방법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중화를 보존하는 것이 어렵다면 나라를 떠나서라도 자신의 몸을 지켜 중화를 보존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였다.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새로운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호서유림이 중심이 된 집단적 상소운동이다. 이 가운데 존성운동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후자의 움직임이다.

상소운동의 출발점은 고종 환어운동이었다.<sup>22)</sup> 유림은 남별궁 뒤편 소학교에 還御疏廳을 설치하고 환어 상소에 나섰다.<sup>23)</sup> 참여 인사는 3백 여 명에 달했는데 蔡光默·李鳳鶴·李相天·李文和·李建奭·沈宜承·宋秀晚·金雲洛 등이 환어소청을 주도한 이들이다. 이 가운데 채광묵·이봉학·이상천은 홍주의병 출신이며, 김운락은 안동의병에 가담했던 인물이다. 홍주의병 출신이 많은 것이 눈에 띄는데<sup>24)</sup> 이들은 갑오개혁 당시에 의병봉기를 모의하다가 명성왕후가 시해 소식을 접한 후 재집결하여 군사를 모집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고 단발령이 공포되자 마침내 거병하였다.<sup>25)</sup> 홍주의병을 주도했던 金福漢(1860~1924)은 “開國 504년 8월 20일의 사변은 역사상 있을 수 없어서 倡義復讐는 단연코 不得已한 것”이라고 하여 시해 사건이 거병의 직접적인 이유였음을 밝혔다.<sup>26)</sup> 다른 지역 유림이 주로 단발령에 충격을 받아 의병을

22) 일본공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고종 환어운동은 경상도 유생들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고 한다. 삼남 지방의 유생들이 복합 상소를 하기 위해 먼저 경상도 일대에서 모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권12, 「還宮始末」(1897년 2월 22일).

23) 환어 상소에 대해서는 김대길, 「醒石 李建奭의 생애와 국권수호운동」, 『충북학』 5, 2003, 66~68쪽 참조.

24) 상소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견석은 의병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영동 출신이다.

25) 김상기, 『호서유림의 사상과 민족운동』, 지식산업사, 2016, 338쪽.

일으켰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유인석의 경우 시해사건에 대해 국모가 화를 당한 것은 조정 신하의 일이지 재야 백성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거의할 수 없으며 거의하는 것은 도리어 과도한 충성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유인석은 국모가 화를 당한 것에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삭발의 화를 기다렸다가 거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sup>27)</sup> 단순화시켜 보자면 유인석으로 대표되는 척사계 인사들이 중화의 보존이라는 ‘保華’를 목표로 했던 데 반해 호서유림의 경우 국가적 수모를 되갚아야 한다는 ‘扶國’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벌였다고 할 수 있다.

홍주의병 출신으로 대표되는 호서 유림이 주도한 환어운동은 1897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환어소청에서는 1897년 1월 30일(음력 12월 28일) 경기 유생 趙性薰을 소수로 하여 환어를 촉구하는 소를 올렸다. 이들은 임금에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어 정령이 시행되지 않고 예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속히 환궁할 것을 요청하였고 고종은 매우 가상하다는 비답을 내렸다.<sup>28)</sup> 소청에서는 고종의 비답에 소청은 고무되어 즉시 再疏를 올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고종이 1897년 2월 20일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오는 데 환어소청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이 환궁한 후에도 유림은 해산하지 않고 목표를 바꿔가며 상소운동을 계속하였다. 4월에는 명성왕후 시해에 관여했던 역적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復讐疏廳을 설치하였다.<sup>29)</sup> 환어소청을 주도했던 이들의 상당수가

2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義兵抗爭裁判記錄』,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1970, 331쪽.

27) 유인석 의진에서도 지도부를 구성한 근왕세력은 復讐, 화서학과 유생은 保形을 더 중시했다고 하였다는 평가가 있다(吳瑛燮, 『華西學派의 思想과 民族運動』, 국학자료원, 1999, 278쪽). 의병 내부의 이러한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8) 『承政院日記』 高宗 33년 12월 30일(양 2월 1일).

29) 복수소청에 대해서는 김대길, 앞의 논문, 2003, 69~71쪽 참조.

복수소청에도 참여하였다. 소청에서는 4월 김운락을 소수로 한 상소를 시작으로 12월 이문화 등의 상소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쳐 소를 올렸다. 복수소청이 설치되어 있던 시기에 고종의 칭제를 건의하기 위한 稱帝疏廳도 구성하였다. 고종을 황제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洪鍾宇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는데 본격적인 칭제운동은 5월 1일 전 승지 李最榮의 상소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최영은 전 군부참령 金教燮과 함께 忠勳府 빈 관사에 소청을 설치하고 칭제 운동을 주도하였다.<sup>30)</sup> 姜懋馨·李秀丙·玄東健 등이 연이어 황제에 오를 것을 청하는 소를 올렸다. 칭제소청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이들 소를 소청에서 올린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소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sup>31)</sup>

복수소청을 해산한 뒤에는 외국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기 위해 建議疏廳을 설치하였다.<sup>32)</sup> 상소운동은 1898년 3월 6일(음력 2월 14일) 심의승 등이 국가의 財賦와 軍權을 외국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絶影島에 석탄고 기지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의 문제를 충훈부에 모여 토의하자는 내용의 통문을 발송하면서 시작되었다. 건의소청에는 채광목·심의승·이상찬·이건석·김운락·송수만 등 환어소청과 복수소청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그대로 참여했고, 칭제소청 설립을 주도했던 이최영·김교혁도 가담하였으며, 金山의 진을 이끌었던 許薦(1855~1908) 등이 새로 합류하였다. 또한 관료 출신으로는 복수소청과 관계를 맺었던 趙秉式과 칭제운동을 주도했던 이최영 등도 참여하였다. 건의소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홍종우였는데 상소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종우는

30) 『독립신문』, 「각부 신문」, 1897년 5월 13일자.

31) 이수병의 경우 1897년 초 소수가 되어 복수를 주장하는 소를 올린 바 있다(『承政院日記』 高宗 34년 3월 22일(양 4월 23일)). 이 상소는 복수소청 관련 문적에 수록되어 있어 이수병은 복수소청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수병의 예로 보아 복수소청과 칭제소청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2) 건의소청과 관련된 대체적인 내용은 김대길, 앞의 논문, 2003, 72~74쪽 참조.

3월 17일(음력 2월 25일) 천 여 명과 함께 경운궁 인화문 앞에 나아가 대표로 소를 올려 우리가 제국이 되었으므로 정치를 전제해야 하는데 도리어 군제가 남의 통제를 받고 있고, 우리의 재부가 통상을 통해 일방적으로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33)</sup> 호서의병 출신 유럽에 의해 주도된 상소운동은 근왕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고 정부와도 연결되었다.<sup>34)</sup>

환어운동으로 시작된 상소운동의 관심사는 교육 문제로 확장되었다. 1896년 7월 진사 鄭惺愚는 소를 올려 고종의 환어를 주장하면서 성균관을 개편함으로써 어진 이를 육성하고 오백년 동안 제사를 지내왔던 성균관이 하루아침에 기예를 닦는 장소로 전락하였고 그 결과 尊聖의 도리가 없어지고 崇儒의 기풍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sup>35)</sup> 교육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대한제국이 성립한 직후인 1897년 말부터 나타났다. 관심을 환기한 이들은 성균관 내부 인사들이었다. 1897년 11월 8일 성균관 직원 李能宰는 문묘를 개수하면서 고유제를 지낼 때 축문에 ‘皇帝遣臣某官致祭’라고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송 대에 ‘皇帝謹遣某官敢昭告’라고 했던 것 등과 비교하여 예우 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축문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6)</sup> 성균관 교수 慶賢秀(1861~1928)도 같은 내용으로 소를 올렸다. 金平默(1819~1891)의 문인이었던 경현수는 칭제를 건의하고 건의소청에 참여하는 등 상소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인물이다. 1898년 2월 19일(음 1월 29일)에는

33) 『建議初疏草』. 김대길 편, 『영동 애국지사 이건설 자료집』, 충북학연구소, 2004, 413~418쪽.

34) 상소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심의승·이문화 등은 후일 관계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日新』 1901년 8월 26일, “從色論輸任內部主事借啣 而今聞則往年復讎上疏 疏首沈宜昇·李文和·金顯峻三人 借任各其主事也”.

35) 『承政院日記』, 高宗 33년 5월 29일(양 7월 9일). 정성우 상소의 초본이 상소운동 주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건설 집안에 남아 있다(김대길 편, 앞의 책, 187~191쪽). 이로 보아 정성우도 환어소청에 관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36) 『尊華錄』, 권6, 「疏」. 『독립신문』은 11월 8일 호외로 이능재의 상소에 고종이 비답을 내렸음을 알렸다. 『독립신문』, 1897년 11월 9일자.

沈宜性을 대표로 하는 성균관 유생들이 소를 올려 좀 더 강경한 어조로 축식이 합당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성인의 지위가 이러한데도 공자에게 故臣을 제사하는 투식인 ‘遣臣致祭’를 쓴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축식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성인을 높여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무릇 지위는 천자보다 높은 이가 없고 道에 있어서는 공자보다 높은 이가 없는데 언뜻 말하면 그 존귀함이 서로 같은 듯합니다. 그러나 천자의 전례는 본래 聖師가 述作한 데서 나오고 천자의 德教는 반드시 聖人이 후학을 인도한 공에 의뢰합니다. 그러므로 역대 제왕이 공경과 예를 다해 성사를 섬기지 않음이 없습니다. 성사를 높이는 것이 곧 도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성사에 대한 예가 융숭할수록 제왕의 덕도 높아지고 성사의 도가 밝아질수록 제왕의 덕이 더욱 빛납니다.<sup>37)</sup>

성인이 국왕보다 우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성인을 높이는 것이 제왕의 권위를 수식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힌 것이다.

성균관 내부에서 촉발된 존성운동은 유림의 상소운동으로 이어졌다. 許傳(1797~1886)의 조카 許運 등은 성인을 존송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고, 복수를 대의로 삼아 시역한 무리들과 斯文의 적들에게 속히 형벌을 시행하기를 청하였다.<sup>38)</sup> 유림은 개별적으로 소를 올리는 데서 나아가 尊聖疏廳을 설치하였다. 존성소청은 육조 앞 耆老所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데<sup>39)</sup> 설치된 시점

37) 『承政院日記』 高宗 35년 1월 29일(양 2월 19일), “大抵位莫尊於天子 道莫尊於孔子 驟而語之 其尊雖若相等 然天子之典禮 本出於聖師之述作 天子之德教 必賴於聖人之繼開 故歷代帝王 莫不致敬盡禮以師事 尊師所以尊道也 師禮愈隆 而帝德益高 師道愈明 而帝德益光”. 심의성은 유증교의 친구 沈能昱의 아들이다.

38) 『騎驢隨筆』에는 1898년 1월에 허운이 소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39) 1898년 10월에 육조 앞 기로소에 있던 존성소청인들이 학부에서 각도에 소청 비용을 내라는 내용으로 훈령을 내려주도록 청원하였다. 『帝國新聞』, 「잡보」, 1898년 10월

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898년 7월 14일 건의소청에서 ‘대한애국청년회 사건’으로 통문을 돌리자 다음날 존성소청에서 回通을 보낸 것으로 보아 당시에 존성소청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0)</sup> 존성소청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宋秉稷·許伋·俞致元·李復永·李茂重·李寅英·鄭禧澤·鄭元澤·李久永·沈相洛·盧永萬 등이다. 이 가운데 허척·이복영·이무중·이구영·노영만은 복수소청 내지 건의소청에 참여한 바 있다. 그간의 상소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중심이 되어 존성소청을 설치했던 것이다.

존성소청이 설치되었던 시기에 향약 실시를 목적으로 한 都約所도 만들어 졌다. 鄉約廳·鄉約都廳으로도 불렸던 도약소는 1898년 7월 2일 건의소청의 金奭濟·沈相禧·이문화·김운락·심의승·서상무·경현수 등의 주도로 구성되었다.<sup>41)</sup> 이문화는 을미사변의 치욕을 씻고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유학의 도가 점점 쇠퇴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도약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sup>42)</sup> 이들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도약소에서 관리하게 하면 삼대의 정치를 다시 오늘날 볼 수 있고 예의의 大宗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향약 시행을 건의하였다.<sup>43)</sup> 존성소청과 도약소는 유학 진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였다. 존성소청이 설치되자 도약소에서도 크게 반겼다. 이들은 복수의 뜻으로 각 곳에 여러 차례 통문을 보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었는데

25일자.

40) 『尊聖疏廳回通』, 김대길 편, 앞의 책, 2004, 398쪽. ‘대한청년애국회’ 사건은 1898년 7월 1일 대한청년애국회 명의로 학교와 신문사 등에 황제를 퇴위시키고 황태자에게 국정을 대리케 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가 배달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으로 독립협회 전 회장 安駟壽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청년애국회 사건에 대해서는 조재곤, 『그래서 나는 김육균을 쏘았다』, 푸른역사, 2005, 173~175쪽 참조.

41) 『通文』(김대길 편, 앞의 책, 2004, 431~432쪽). 도약소 관련 문서는 『都約所文蹟鈔』에 실려 있다. 도약소에 대해서는 徐珍教, 『1898年 都約所의 結成과 活動』, 『진단학보』 73, 1992 참조.

42) 『承政院日記』 高宗 35년 10월 28일(양 12월 11일).

43) 『承政院日記』 高宗 35년 7월 20일(양 9월 5일).

존성소청에서 대의를 펴겠다는 뜻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며 복수와 존성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존성의 뜻이 있다면 먼저 복수를 해야 하고 복수의 의리를 펴는 것이 곧 존성의 방도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존성소청을 復尊疏廳으로 표기하였다.<sup>44)</sup>

존성소청에서는 1898년 8월 俞致元을 소수로 하여 소를 올렸다. 이들은 국가를 다스리고 풍속을 교화하는 근본인 학교가 갑오년 이후 무너졌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갑오년 신식 제도를 가지고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선왕께서 학교를 높이던 전례가 하루아침에 다 변해 결국 學部로 하여금 太學을 제어하게 하니, 다시 이전의 國子 선생이 아닙니다. 또 탁지부에서 學田을 줄이고, 학교에 속한 民戶의 면세전을 軍資로 만들었으며, 예를 관장하는 신하가 祝文의 격식을 깎아 고치고, 신식 학교의 교원이 학교 토지를 침탈하였습니다. 斯道의 정대한 논의는 날로 줄어들고, 異類의 사특한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여 이로 말미암아 명교가 확립되지 않고, 풍속과 교화가 점차 무너져 올미년의 변란에 이르렀습니다.<sup>45)</sup>

성균관과 향교의 기능이 위축된 결과 을미사변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명성왕후 시해사건은 큰 정신적 충격이었으며 학교 제도의 정비는 이러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이들은 학교 제도를 복구하여 신민들로 하여금 충효를 흥기하게 한다면 복수할 수 있는 방도가 저절로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고종은 상소에 대해 옛 전례를 모르고 견문이 지나치게 좁다는 부정적인 비답을 내렸다.

44) 『奉復尊疏廳通文』(김대길 편, 앞의 책, 2004, 477쪽).

45) 『承政院日記』高宗 35년 6월 23일(양 8월 10일), “試以甲午新式言之 先王崇學之典一朝盡變 遂使學部制太學 非復前日之國子先生 又自度支 折減學田 校戶復結 入爲軍資 掌禮之臣 刪改祝式 新學教員 侵奪校土 斯道正大之論 日減時削 異類詖邪之說 歲增月加 由是而名教不立 風化漸頹 馴致乙未之變”.

10월에는 유학 金鎔澈 등이 소를 올렸는데 “외람되게 존성하는 일로 소청에 오게 되었다[猥因尊聖 疏廳來到]”고 밝히고 있어 존성소청에서 올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삼강오륜을 바로잡기 위해 선왕을 황제로 높여 부를 것, 문묘의 진토를 회복할 것, 빨리 황후를 간택할 것, 청렴한 군수를 선발할 것, 곤궁한 백성을 구휼할 것 등 5가지 사항을 요청하였다. 유치원 등이 학교 제도의 복구에 집중했던 데 비해 다양한 문제를 거론하였는데 황제국의 위상에 맞게 삼강오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었다. 김용철 등은 이 5가지가 바르게 되면 나라가 편안해지는 것은 물론 외국 임금도 우리의 삼강오륜을 사모하여 받아들이고 외지인들이 귀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46)</sup> 하지만 고종은 이들의 소에 대해서도 글이 황당하고 두서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10월 25일에는 관리와 유생들이 소청을 차려놓고 건의소청이나 도약소 등 이름을 바꿔가며 백성들에게 돈을 강제로 징수하는 등 폐단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산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sup>47)</sup> 이로 인해 도약소는 혁파되었지만 존성소청은 해산하지 않고 김용철 등이 12월 11일에 다시 소를 올려 삼강오륜이 무너지고 있다며 문묘 제사에 필요한 토지를 복구하여 성인을 높이고 인륜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8)</sup>

유치원과 김용철 등의 상소가 고종의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지 못하자 존성소청의 송병직 등이 이어 소를 올렸다. 송병직은 송시열의 9대손으로

46) 『承政院日記』 高宗 35년 8월 19일(양 10월 4일). 이날 유학 南龍鎭도 소를 올려 유생들로 하여금 태학과 향교에서 經史를 익히게 하여 儒術을 밝힐 것을 청하였다. 남용진(南龍鎭)의 소는 소청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올린 것으로 짐작되는데 외국어 교육은 치국안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유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7) 『承政院日記』 高宗 35년 9월 11일(양 10월 25일).

48) 『承政院日記』 高宗 35년 10월 28일(양 12월 11일). 『독립신문』에 따르면 도약소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도약소가 혁파되자 起復을 폐지할 것, 부인들이 학교를 설립하자며 조직한 회를 없앨 것 등을 요청하기 위해 만민공동회를 받기하고자 했다고 한다(『독립신문』, 「잡보 : 도약소 여당」, 1898년 11월 14일자).

1895년 12월 김복한 등과 함께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그는 모후의 원수를 갚지 않고, 성인을 존중하지 않으며, 임금의 권한이 專制되지 않으면 중화가 이적으로 바뀌고 사람이 짐승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면서 모후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정치를 개명해야 하고, 성인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학을 물리쳐야 하며, 임금의 권한이 專制되기 위해서는 독립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명성왕후의 원수를 갚고 황제권을 강화한다는 상소운동의 기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송병직 등은 그 가운데도 성인을 존중하는 일이 근본인데 성균관을 器械와 語學 아래에 두어 雜技의 학문이 성인의 도보다 중시되고, 태학과 향교의 전토 등이 몰수되어 제사도 제대로 지내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개탄하였다. 이들은 학부를 옮겨 소속시킨 것을 바로잡고, 서울과 지방의 제사에 필요한 물품과 선비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관원과 학생을 예전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사학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인이 존중되지 않는데 개화론의 폐단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개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으레 모두 聖賢을 알잡아 보고 仁義를 하찮게 여겨서, 요·순을 본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등, 경전은 배울 만하지 못하다는 등, 역적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등, 사설이 도리를 갖추고 있다는 등 말을 하며, 중화와 이적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것을 싫어하며, 부모를 버리고 임금을 뒷전으로 하며 삼년상을 가볍게 버려서 기필코 강상을 무너뜨리고 예법을 폐지하고야 말 것입니다.<sup>49)</sup>

송병직 등은 개화론자를 다 주벌할 수는 없고 성인의 도로써 교화해야 하므로 태학과 향교 외에 四學과 서원도 복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학교를

49) 『承政院日記』高宗 35년 11월 20일(양 1월 1일), “主開化論者 例皆貶薄聖賢 卑惡仁義 謂堯舜不足法 謂經傳不足學 謂逆賊愛國 謂邪說有道 禁說華夷 惡辨人獸 遺親後君 輕棄通喪 必欲滅綱常廢禮法而後已”.

진흥하여 개화론을 종식하고 그런 바탕에서 황제권을 강화하여 국모의 원수를 갚고 흥적을 토벌해야 한다는 것이 송병직 등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유치원의 소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고종이 송병직의 소에 대해서는 의외로 “의리를 밝히고 도리를 존중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한 말이 매우 좋다”는 우호적인 답변을 내렸다. 고종이 태도를 바꾸어 송병직의 소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독립협회와의 문제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독립협회와 갈등을 빚던 고종은 1898년 12월 25일 11가지를 죄를 나열하여 독립협회를 비판하였고<sup>50)</sup> 이를 계기로 독립협회는 사실상 활동이 중지되었다. 고종으로서는 그동안 근왕주의적 상소운동을 전개했던 유림을 포용할 필요도 있었을 것인데 독립협회를 무력화시킨 상태라 독립협회 관계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유림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고종의 태도 변화에 유림은 고무되어 존성활동에 나섰다. 이는 『독립신문』의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월 16일자 신문에서는 「인민 헌의」라는 제목 하에 충청도 유생 송병직, 경상도 유생 손정간, 전라도 유생 정희택 등이 중추원에 헌의서를 바쳐 ‘國學과 州校에 享需의 供과 應用의 結果 선비 기르는 경비와 절수한 稅를 모두 전과 같이 시행할 것’을 청했다고 보도하였다.<sup>51)</sup> 상소와 별도로 중추원에도 헌의서를 보낸 것인데 그 내용은 상소에서 주장한 바와 같다. 3도 유생이 공동으로 올리는 형식을 하고 있는데 담당 출신의 정희택은 존성소청에 참여한 바 있고, 孫廷侃은 許傳의 문인으로 소청과 관련 있는 인물이다.<sup>52)</sup> 신문에 따르면 중추원은 송병직 등이 헌의한

50) 『高宗實錄』 高宗 35년 12월 25일.

51) 『독립신문』, 「잡보 : 인민 헌의」, 1899년 2월 16일자.

52) 손정간은 1900년에 경상·강원·충청·전라 4도 유생과 함께 안경수 처벌을 요구하는 헌의서를 중추원에 보냈다(『日新』, 庚子(1900) 正月 26일). 鄭喬는 유학 이문화·심의 승·김운락·손정간 등이 아첨할 뜻으로 대궐 앞에 엎드려 상소를 올리거나 혹은 중추원에 의견을 바치고 안경수와 권형진을 처단하라고 요청했다(『大韓季年史』 光武

내용으로 회의하여 당초 향교소속이었다가 다른 곳으로 전용한 재용을 다시 향교로 이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의정부에 하달했다고 한다. 물론 『독립신문』은 존성활동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이었다. 4월 3일자 신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내왔으며 소개했는데 송병직 등이 존성을 빙자하여 충청도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어들이고 대신을 찾아다니며 향교와 서원에 다시 토지를 소속시켜 주도록 청탁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전곡으로 자기 배만 불리려는 계책이므로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53)</sup>

유림이 존성 활동을 벌이고 있던 상황에서 1899년 4월 27일 고종은 두 가지 새로운 詔諭을 내렸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商工學校를 개설하라는 조령이다. 고종은 세계 각국이 부강하여 상대할 적이 없는 것은 格致의 학문에 종사하여 物理의 온축된 바를 구명하기 정밀한 지식을 더욱 정밀하게 추구하고 정교한 기물을 더욱 새롭게 추구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교육의 바탕이 없어 인민의 知見이 열리지 못하고 농업과 상업도 흥하지 못해 국가가 날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고종은 학교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도 특히 상공학교는 서둘러야 한다며 대책을 마련하여 지혜와 문물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지시에 따라 6월 24일 칙령 제28호로 ‘商工學校官制’가 반포되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종교를 밝히려 한다는 조령이다. 고종은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인심을 착하게 하고 다스림의 도를 드러내기 위해 종교를 숭상하는데 힘을 쏟는데 반해 우리는 종교를 그냥 존송하기만 하여 실속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우리나라의 종교는 ‘공자의 도’인데 종교가 밝지 않아 난역이 계속 되고 결국 을미년의 변괴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자신과 동궁이 유교의 종주가 되어 기자와 공자의 도를 찬양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

4년 5월).

53) 『독립신문』, 「잡보 : 송씨 협잡」, 1899년 4월 3일자.

성균관에 招賢堂을 세워 선비들을 초빙하고, 성균관의 官制章程도 개정하도록 지시하였다.<sup>54)</sup> 유학이 쇠퇴한 결과 을미사변이 발생했다는 유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고종이 내린 두 가지 조령은 서양 국가를 모범으로 하여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린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종교를 밝혀야 한다는 조령이 각도에 반포되자 유림은 크게 고무되어 공자의 도가 세상에 다시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sup>55)</sup> 갑오년 이후 문명론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고종이 내린 조령은 유림으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만드는 희소식이었다.

고종의 조령을 계기로 유림은 존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나섰다. 여러 지역의 유생들이 존성하자는 내용으로 현의를 했으며,<sup>56)</sup> 허칙 등 17인은 존성에 관한 일로 학부에 연명으로 진정하였다.<sup>57)</sup> 또한 소청에서는 중추원에 3년 상을 마치기 전에 관직에 복귀하는 起復에 관한 일로 현의하였다. 기복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유림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익현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는 기복이 오류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영구히 혁파할 것을 촉구하였다.<sup>58)</sup> 소청의 유림은 효가 오류의 근본인데 지금은 부모의 상을 당해도 탈상 전에 거리낌 없이 관직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기복을 금지하여 효를 돈독히 해야만 충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청에서는 각 곳의 향교에 기복의 폐단을 지적하는 통문을 발송하는 등 오류 강화를 위한 운동에 나섰다.<sup>59)</sup>

---

54) 『承政院日記』 고종 36년 3월 18일(양 4월 27일).

55) 『承政院日記』 고종 39년 3월 18일(양 4월 25일).

56) 『독립신문』, 「잡보 : 존성 홍일」, 1899년 5월 22일자.

57) 『독립신문』, 「잡보 : 존성 소청」, 1899년 7월 15일자. 기사에는 허칙이 허식으로 되어 있다. 허식이 허칙과 동일인임은 『매일신문』에 “죽산군에 거주하는 허식”이라는 기사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매일신문』 1899년 1월 21일자) 소청 관련 자료에 따르면 허칙의 거주지는 죽산군이였다. 허식은 현재 허칙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두 신문에 모두 허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표기에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58) 『承政院日記』 고종 35년 10월 29일(양 12월 12일).

#### IV. 尊聖運動과 『尊華錄』·『大東正路』 간행

유림이 전개한 존성운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서적 편찬 작업이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당시 신문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99년 5월 19일자 『帝國新聞』은 고종의 조령을 계기로 각처에서 유림이 성현을 존송하는 일로 상소한 글 등을 모아 책자로 만들어 각 곳에 보내려고 한다고 전하였다.<sup>60)</sup> 5월 31일자 『皇城新聞』에서도 충훈부에 각 지역 유생들이 모여 열성조의 尊聖論音과 尊聖疏를 간행하여 각 도에 한질씩 발송하기로 결정한 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sup>61)</sup>

존성활동과 관련한 출판 작업의 첫 결과물이 『尊華錄』이다. 『존화록』은 1898년에 소를 올려 고종의 우호적 답변을 이끌어냈던 송병직의 주도로 1900년(광무 4)에 편찬되었다.<sup>62)</sup> 송병직은 고종의 조령이 나오자 유림들과 함께 존성 기록을 간행하기로 계획하여 『존화록』을 편찬하였다.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도 송병직 등의 『존화록』 편찬 작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책 뒤에 실린 서적 편찬 실무자들의 명단을 보면 상당수가 호서 유림이다.<sup>63)</sup> 그동안 소청운동을 주도했던 이들도 호서유림이었고 송병직 역시 호서유림이었기 때문에 『존화록』 편찬에 호서유림이 대거 참여하게 된 것이다. 호서 유림이 주도했지만 화서학과의 최익현·李佐承·尹錫鳳·이복영이 서문과 발문을 쓰고, 노사학과의 奇宇萬도 발문을 작성하는 등 『존화록』 편찬에 많은 유림이 관심을 보였다. 이복영은 앞서 본 것처럼 존성소청에 참여했던 인물

59) 『尊華錄』 권6, 「獻議樞院 疏廳」; 「通文 八道校宮」. 소청은 존성소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60) 『帝國新聞』, 「잡보 : 존성소적」, 1899년 5월 18일자.

61) 『皇城新聞』, 「雜報 : 勳府儒會」, 1899년 5월 31일자.

62) 『尊華錄』에 대해서는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 184~233쪽 참조.

63) 1898년 2월에 송병직과 함께 헌의서를 올렸던 담양 유생 정희택이 교정에 참여한 것이 눈에 띈다.

이기도 하다.

최익현은 서문에서 복희씨 이래 유도를 추구해왔는데 이적의 풍속 때문에 어지러워지고 이단음사의 說 때문에 파괴되었다면서 ‘尊中華攘夷狄’, ‘衛先聖斥淫邪’ 두 가지가 儒門의 중대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존성이 위정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본 것이다. 이좌승은 서양 오랑캐는 천지의 극히 치우친 기운을 얻어 지혜가 적고 지식이 사사롭기 때문에 행하는 바가 윤상에 어긋나며, 그들이 배우고 익히는 바는 工匠과 巫覡의 일인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병기로 사람을 해쳐서 자강하지 못한 나라는 모두 그들에게 제압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개화 이후 의제가 바뀌고, 임금이 꺾박 받고 국모가 시해되는 등 역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고종의 4월 조령이 나온 것을 반기면서 1881년 척사운동 당시 유종교의 언설을 빗대 유자가 견지해야 할 태도를 제시하였다. 음양이 消長하는 일대 전환기에 태어나 守義自靖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자신을 지키며 뒷날을 기약해야 하고, 抗節斥邪하기로 생각했으면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종교가 그랬던 것처럼 국왕의 결단을 기대하면서 유자들에게 위정척사에 힘쓸 것을 촉구하였다.<sup>64)</sup>

『존화록』은 태학 관련 사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송병직은 범례에서 태학의 중요성을 범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화가 중화가 되는 이유는 여러 성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성현을 존송하여 받드는 일은 태학에서 하므로 태학은 중화의 근본이다. 그런 까닭에 존화의 도를 논할 때 특히 태학과 관련된 사실이 실로 첫머리가 된다. 그런즉 태학에 관련된 사실을 유독 상세히 해야 하지 어찌 창의복수의 일과 나란히 할 수 있겠는가. 절의의 선비가 어찌 저절로 나오는 것이겠는가. 실로 朝家에서 학문을 숭상하고 도를 중히 여기며 士氣를 배양한 결과이다. 지금 함께 거론하는 것은 도학과 절의가 별개의 사건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이다.<sup>65)</sup>

64) 柳重敦, 『省齋集』 권39, 「柯下散筆：書辛巳諸儒疏後」.

65) 『尊華錄』一, 「凡例」, “中華之所以中華 以其有群聖賢相承 而尊奉聖賢 在於太學 太學者

창의·복수 활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태학으로 대표되는 崇學重道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태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태학 관련 내용은 1785년(정조 8)에 閔鍾顯이 편찬한 『太學志』를 인용하였다. 태학에 이어 19세기 이후 창의·복수 활동 기록을 수록하였다. 창의 부분은 제천의진, 안동의진, 홍주의진의 격문 등을 골고루 실었다. 서양 국가에 대한 청원을 주장하여 척사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던 郭鍾錫의 포고문을 실은 것도 눈에 띈다. 청원 역시 절의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한 것이다. 복수와 관련된 내용은 김운락·심의승·채광목이 복수소청에 참여하여 올린 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송병직이 존성소청에 관여했기 때문에 복수소청 관련자들의 글을 수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존화록』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시 태학 관련 사실을 수록함으로써 태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유학 교육이 강화되지 않고는 개화론에 맞설 수 없음을 인식하여 태학을 중심으로 『존화록』을 구성했던 것이다.

유림은 고종의 조령에 고무되어 『존화록』을 편찬했지만 정작 고종이 지시한 유교 진흥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자 1902년 4월 궁내부 특진관 宋鍾億과 유생 80여 명이 소를 올려 몇 년 동안 한 가지 일도 조치된 것이 없고 한 사람의 현인도 발탁된 자가 없으며 문묘에 올리는 제사는 빈약해져 가고 학문을 강론하는 전당은 황무지가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들은 공자의 위호를 文宣王에서 至聖先師로 바꿀 것, 천자의 예에 따라 성균관의 호칭을 辟雍으로 고칠 것, 관제를 개정하고 규칙을 세워 학문을 장려하고 선비를 선발하는 곳을 별도로 만들 것 등 세 가지를 요청하였다. 고종은 선사로 호칭하는 것은 경황이 없어 시행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뜻과 부합한다며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벽옹으로 고치는 것도 적당한 시기에 처리될 것이라고

---

華之本也 故論尊華之道 不得不以太學事實爲冒頭也 然則太學事實之獨詳焉 可也 奚爲並及於倡義復讐之事 盖節義之事 豈徒然出乎哉 實出於朝家崇學重道培養士氣之餘也 今此並舉所以明夫道學節義之非兩件事也”.

답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 측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10월경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상소를 준비하였다.<sup>66)</sup>

이런 가운데 1903년에 허척과 郭漢一(1869~1936) 등 남인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大東正路』를 편찬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허척은 존성소청을 비롯한 각종 소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sup>67)</sup> 곽한일은 최익현에게 가르침을 받은 바 있고 홍주의진에 참여하였다.<sup>68)</sup> 『대동정로』 출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전 현직 관료와 유생을 포함하여 210여 명에 이르는 데 그 가운데는 경현수·김운락 등 소청 출신 인물들도 있었다.<sup>69)</sup> 허척 등은 芻蕘이 천하를 무너뜨리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기 위해 『대동정로』를 찬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노론 유림이 『존화록』을 편찬한 것도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서문은 영남남인계 관료 張錫龍(1823~1908), 고종의 측근이었던 의정부 참정 金聲根(1835~1919), 기호남인계의 맥을 잇고 있던 관료 李南珪(1855~1907) 세 사람이 썼다. 장석룡은 사실이 더욱 치성하고 오도는 날로 쇠퇴하여 말류의 폐단이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동방의 일맥 원기가 불을 밝히고 있음을 자부하면서 『대동정로』의 간행을 계기로 천하 사람들이 모두 유래한 길을 알게 되면 천하의 정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

- 66) 『承政院日記』 高宗 39년 3월 18일(양 4월 25일). 상소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李建爽 자료집에 『尊聖再疏疏本』이 실려 있다(김대길 편, 앞의 책, 2004, 479쪽). 존성에 관한 두 번째 상소 초안이며, 송종익 등이 올린 소가 첫 번째 상소이다. 소본이 이견석 집안에 소장된 것으로 보아 상소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이 중심이 되어 존성소를 올린 것으로 짐작된다. 재소를 올렸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 67) 허척의 거주지는 안성인데 안성은 남인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다. 1876년 개항 때 柳始秀·姜健善·姜福善 등 남인이 개항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유시수에게 학문을 배웠던 안성 출신 남인 洪大心(1837~1877)이 이항로의 문인이 되어 김평묵·유중교와 교류한 것을 계기로 화서학과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柳重教, 『省齋集』 권42, 「柯下散筆 : 洪確齋行狀」).
- 68) 김상기, 『호서유림의 사상과 민족운동』, 지식산업사, 2016, 344쪽.
- 69) 『大東正路刊役時同苦錄』.

다.<sup>70)</sup> 이남규는 갑오·을미년의 변란 이후 공리의 설이 치성하고 합중연횡의 법술이 횡행하는 가운데 일부 시골 선비들이 의관을 갖추고 경전과 예법을 논하며 유학의 명맥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영남 인사들이 『대동정로』를 편찬한 후 널리 전파하기 위해 간행을 계획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책의 간행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학사와 대부뿐만 아니라 천하 사람들이 가야할 길이 제시될 것이므로 천하의 정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룡과 이남규 두 사람 모두 사설의 유행에 따른 유학의 쇠락을 크게 우려하면서도 유학이 세계에 전파되기를 기대하였다.

『대동정로』는 학교에 관한 「太學儀典」과 척사서를 발췌한 「斥邪」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태학의전」은 『존화록』과 마찬가지로 주로 『태학지』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대동정로』에서 눈에 띄는 것은 ‘斥邪’조인데 『존화록』이 척사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했던 것과 달리 척사운움과 함께 부록으로 몇 종의 척사서를 수록하였다. 운움은 기해사옥 후의 척사운움, 1881년의 척사운움, 1889년 4월의 조령 등 세 편을 실었다. 척사서는 愼後睦(1702~1761)의 「西學辨」, 洪正河의 「證疑要旨」, 「實義證疑」, 「萬物眞原證疑」, 「眞道自證證疑」, 「盛世芻蕘證疑」, 許傳의 「書西學辨後」, 金致振(1822~1869)의 「斥邪論」 가운데 「東人問答」, 「辨聖事七蹟」, 「辨科官」, 「辨婚配」, 「辨俗輩虛傳說」, 「辨因改」, 「總論」, 「救弊論」, 李漢(1629~1690)의 「天主實義跋」 등이다. 흥정하는 丁範祖나 姜浚欽과 같은 근기 남인과 인사들과 교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남인계로 짐작되는 인물이다. 김치진은 상주 지방의 사족 출신으로 추정되는데 상주 출신이라면 남인계일 가능성이 높다. 남인계의 척사서를 주로 수록한 것은 남인계가 척사운동의 주역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70) 張錫龍은 『尊聖闡儒』의 서문도 쓴 바 있다(張錫龍, 『遊軒集』 권7, 「尊聖闡儒冊序」). 『尊聖闡儒』은 열성조의 교화와 유현의 언행을 모은 책으로, 사문이 쇠퇴하고 이설이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간한 것이다. 1900년 전후 존성운동과 관련된 책이 아닐까 짐작된다.

이 가운데 본격적인 척사서라 할 수 있는 것은 신후담·홍정하·김치진 세 사람의 글이다. 허전은 「書河濱愼公西學辨後」와 「書四編證義後」를 지어 「서학변」과 홍정하의 글을 높이 평가했으며 특히 홍정하의 『사편정의』를 발췌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후학들에게 서학을 경계한 바 있다.<sup>71)</sup> 허칙과 허전의 관계는 잘 알 수 없지만 「서학변」과 홍정하의 글을 수록한 데 허전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서학변」의 경우 『職方外紀』 가운데 서양의 학교제도에 관해 비판한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직방외기』 내용은 유럽에서는 국왕이 읍에는 小學, 군에는 中學과 大學을 설치하여 소학에서는 현인의 교훈, 각 나라의 역사, 시문, 文章·議論 등의 네 교과를 배우고, 중학에서는 학년별로 철학 교과를 배우며, 대학에서는 醫科·治科·教科·道科 등 四科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후담은 소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함양의 功이 없고, 중학에서의 가르침은 성리의 참됨에 어두우며, 대학에서는 의학과 같은 천한 기술까지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유럽의 학교 제도는 유학의 가르침을 흉내 낸 것일 뿐이고, 그들의 학문은 하늘이 명한 본연의 善에서 벗어났고 일상의 인륜에 몽매하다는 것이 신후담이 내린 결론이었다. 신후담은 서양 학문이 퍼진다면 성인의 학설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이러한 그러한 우려는 1890년대에 들어 현실이 되고 있었다. 『대동정로』 편찬자들이 「서학변」의 학교 관련 내용을 수록한 것은 당시 상황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홍정하의 글은 『天主實義』·『眞道自證』·『萬物眞源』·『聖世芻蕘』 등의 서학서를 검토하고 비판한 것이다. 총론 격이라 할 수 있는 「증의요지」에서 홍정하는 천주교리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천주교에 빠진 자들이 잘못을

71) 천주교 문제를 함께 우려하던 허전의 벗 申佐模(1799~1877)가 홍정하의 글을 간행하여 사람들을 깨우치도록 제안했는데 허전은 곧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여겨 『사편정의』 가운데 일부만 발췌하였다(許傳, 『性齋集』 권16, 「書四編證義後」).

깨닫고 빠져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보유훈적 천주관에서 벗어나 천주교리를 전면적으로 비판하였고, 천주교리가 유학의 윤리의식에 위배된다는 점을 집중로 부각하였다. 예를 들어 교황제도는 군신 관계에 어긋나는 것이고, 서양 선교사들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천리를 거스르는 것이며 전도를 위해 모두를 버리고 먼 이역 땅으로 오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sup>72)</sup> 허칙 등은 개화론의 확산으로 인륜이 파괴되고 있다고 보아 홍정하의 척사설을 포함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치진의 『척사론』은 19세기 중반에 편찬된 척사서 가운데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척사서이다. 특히 동시대 다른 척사론이 안정복의 「천학고」·「천학문답」 등 주로 2차 자료에 의존하였던 데 비해 『척사론』은 김치진이 천주교회에 잠입하여 얻은 천주교서와 그들과 생활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尹宗儀(1805~1886)가 『關衛新編』을 증보하는 과정에서 『척사론』의 총목차를 게재하고 일부는 발췌 수록하였으며, 유증교는 「玉溪散錄」에서 『척사론』에 의거하여 천주교를 비판하는 등<sup>73)</sup> 『척사론』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동정로』에 수록된 것은 천주교의 결혼제도가 예에 맞지 않고, 서양인들의 醫術·農理·地理 등의 기술이 사람을 유인하여 당을 만들려는 계책임을 지적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치진도 홍정하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천주교를 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특히 학교를 육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학교에서 유자들을 교육한 후 그들로 하여금 천주교서를 탐구하여 그 논리를 반박하게 하고 그 내용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민간에 널리 전파해야 한다고 것이었다.<sup>74)</sup>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대동정로』의 기초와

72) 홍정하의 척사론에 대해서는 금장태, 「髯齋 洪正河의 서학비판론과 쟁점」, 『종교와 문화』 7, 2001 참조; 차기진, 『조선후기의 서학과 척사론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269~270쪽 참조.

73) 柳重教, 『省齋集』 권35, 「玉溪散錄」. 김치진의 『척사론』에 대해서는 노대환, 「19세기 중반 金致振의 『斥邪論』」, 『대구사학』 84, 2006 참조.

부합한다.

『존화록』과 『대동정로』의 편찬으로 이어진 존성운동은 한국을 유학의 기지로 삼아 개화론의 침투를 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서양세계까지 유학으로 감화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었다. 물론 막연한 희망 수준이기는 했지만 유럽이 이런 구상을 하게 된 데는 1900년대 전후의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1898년 말 고종은 독립협회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한 후 1899년 8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전제권을 강화하였다. 전제권 강화는 상소운동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며, 독립협회 혁파도 소청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다. 독립협회 해산과 전제권 강화는 상소운동에 참여했던 유럽이 바라던 것이었다. 고종이 권한을 강화하는데 유럽은 적지 않은 기여를 했으며 독립협회가 무력화된 이후 몇 년간 고종의 권력은 절정에 달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럽은 고종의 지원을 받아 존성을 실현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존화록』과 『대동정로』 편찬에 나섰던 것이다.

유학계 내부에 대한 자성 없이 유학의 가치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존성운동은 그 한계가 분명하였다. 유학계에 제기되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다 보니 『대동정로』의 경우에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분과 여성 문제이다. 예를 들어 「성세추요증의」에서 흥정하는 서양 선교사들이 귀천이 없다거나 명분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로 무지한 常賤을 유혹하여 끌어들이는다고 지적하였다. 또 축첩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투기를 좋아하는 부녀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왜 여성들의 셋서방[間夫]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남성들의 축첩만 거론하겠느냐고 반문하였다. 후손이 없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가 아니므로 후사를 보기 위해서라도 축첩이 필요하다고도 하였다.<sup>75)</sup> 김치진의

74) 金致振, 『斥邪論』, 『救弊論』.

75) 원재연, 「정조대 처사 흥정하의 천주교리서 비판과 천주교 인식」, 『동국사학』 64, 2018, 212~213쪽.

『척사론』 가운데도 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천주교의 주장에 대해 정분이 좋은 첩을 버리는 것은 인정에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sup>76)</sup> 유림은 오류를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신분 질서의 유지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였다.

유학을 확산시키겠다는 유림의 기대와 달리 그들의 입지는 더욱 위축되고 있었다. “위정척사와 존화양이에 대해 더욱 입도 열 수 없다”는 유인석의 탄식은 그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sup>77)</sup> 그런 가운데 유학에 한계를 느껴 사상적 변화를 모색하는 유림도 속속 등장하였다. 건의소청에 참여했던 의병장 허위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는 서울에서 張志淵 등에게서 신학문과 신사상을 전수받고 사상적으로 전환하였다. 그는 1904년 8월에 의정부 참찬에 임명되자 제출한 獻議에서 재주가 우수한 자를 골라 외국에 유학시킬 것, 철도를 증설하고 전기를 시설하여 교통과 산업에 이바지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sup>78)</sup> 1898년 존성소를 올렸던 심의성은 1906년 장지연·尹孝定 등과 大韓自強會를 조직하는데 참여하였고, 정원택은 畿湖興學會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존성운동에 참여했던 여러 인사들이 계몽운동가로 전신하였다. 유림은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다.

## V. 맺음말

존성운동은 호서의병에 참여했던 유림이 주도했던 상소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일부 호서유림은 의병해산 이후 집단적인 소를 통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고종 환어 촉구로 시작된 상소운동은 명성왕후 시해사건 관련자 처벌, 고종에 대한 칭제, 이권 양여 금지 등과

76) 金致振, 『斥邪論』, 「卜婚配」.

77) 柳麟錫, 『毅菴集』 권19, 「答元福汝容錫」(음 1901년 12월 3일).

78) 권대웅, 『왕산 허위』, 지식산업사, 2014, 78~79쪽.

같은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며 계속되었다. 조선시대에 상소는 일상적인 것이었지만 몇 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집단적인 상소운동을 전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상소운동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근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신권이 군주권을 제약하여 각종 변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왕권을 강화한 후 일본과 결탁하여 패악한 행위를 자행한 관료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다.

상소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유림은 유학 진흥 문제에도 관심을 보여 존성소청과 도약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유림은 국모 시해와 같은 패륜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문명개화론이 확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유학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성균관 제도의 복구 등을 통해 유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응하여 1899년 4월 고종이 우리의 종교인 유교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조령을 내리자 유림은 이에 고무되어 존성을 위한 출판 작업에 나서 1900년에 『존화록』, 1903년에 『대동정로』를 각각 간행하였다. 근왕주의적 상소운동을 전개했던 유림은 황제 지위에 오른 고종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1900년 전후 고종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기대를 걸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고종은 유학을 진흥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으며 그 결과 존성운동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이 나고 말았다.

존성운동은 을사늑약으로 국권이 사실상 피탈되기 전에 있었던 유학 진흥을 위한 유림의 마지막 시도였다. 1881년 대대적으로 척사운동을 전개한 이후 유림은 내부를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20여 년의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보여주지 못하였다. 존성운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존화록』과 『대동정로』가 각각 호서유림과 영남유림이 주도로 편찬되었던 데서 나타나듯 유림은 결집하지 못하였고, 『존화록』과 『대동정로』의 내용도 전통 유학을 고수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이에 실망을 느껴 사상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유림이 속출하였다. 존성운동에 참여했던 이들 가운데도 여러 인사들이 계몽주의자로 전신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에 유림이 어떻게 대처

했는가를 살피는 것은 새로운 연구 과제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甲午日記』(『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2권)

『高宗實錄』

『大東正路』

『大東正路刊役時同苦錄』

『獨立新聞』

宋秉瑤, 『淵齋集』

宋相燾, 『騎驢隨筆』

『承政院日記』

柳重教, 『省齋集』

張錫龍, 『遊軒集』

鄭喬, 『大韓季年史』

鄭璣淵, 『琢窩集』

『帝國新聞』

『尊華錄』

崔益鉉, 『勉菴集』

許傳, 『性齋集』

『皇城新聞』

### 2. 단행본 및 논문

具姬眞, 「갑오개혁 전후 전통교육제도에 대한 정책」, 『역사교육』 100, 2006.

권대웅, 『왕산 허위』, 지식산업사, 2014.

권오영, 「膠宇 尹胄夏의 학문연원과 사상경향」, 『남명학연구』 32, 2011.

금장태, 「髯齋 洪正河의 서학비판론과 쟁점」, 『종교와 문화』 7, 2001.

琴章泰·高光植, 『儒學近百年』, 박영사, 1984.

- 김대길, 「醒石 李建瓚의 생애와 국권수호운동」, 『충북학』 5, 2003.
- 김대길 편, 『영동 애국지사 이건설 자료집』, 충북학연구소, 2004.
- 김상기, 『호서유림의 사상과 민족운동』, 지식산업사, 2016.
- 노대환, 「19세기 중반 金致振의 『斥邪論』」, 『대구사학』 84, 2006.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1970.
- 박민영, 「玉山 李正奎의 생애와 활동」, 『지역문화연구』 10, 2011.
- 徐珍敎, 「1898年 都約所의 結成과 活動」, 『진단학보』 73, 1992.
- 吳瑛燮, 「甲午改革 및 改革主體勢力에 대한 保守派人士들의 批判的反應-그들의 上疏文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36, 1992.
- 吳瑛燮, 『華西學派의 思想과 民族運動』, 국학자료원, 1999.
- 원재연, 「정조대 처사 홍정하의 천주교리서 비판과 천주교 인식」, 『동국사학』 64, 2018.
- 조재곤, 『그래서 나는 김옥균을 쏘았다』, 푸른역사, 2005.
- 차기진, 『조선후기의 서학과 척사론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CONFUCIANISM PROMOTION CAMPAIGN(尊聖運動) BY  
CONFUCIAN SCHOLARS DURING THE GREAT KOREAN  
EMPIRE PERIOD AND ITS MEANING

NOH DAEHWAN (NOH, DAE HWAN)

This paper is a study that reviewed the Confucian promotion movement led by some Yurim during the Korean Empire. Confucian scholars judged that the main reason for the occurrence of the murder of Empress Myeongseong and the spread of the theory of civilization enlightenment was due to the decline of Confucianism. Therefore, they argued that Confucianism should be reinforced through restoration of the Sungkyunkwan system. In response to this request, Gojong issued an ordinance in 1899 stating that our religion, Confucianism, should be revealed. Inspired by this, Confucian scholars were encouraged to work on publishing to promote Confucianism, published 『Zonhwaroke』 in 1900 and 『Daedongjeongro』 in 1903.

The respect movement is noted in that it was Confucian scholars's last attempt to promote Confucianism during the Great Korean Empire. Confucian scholars did not show much movement after the massive retaliatory movement in 1881, but when King Gojong ascended to the status of emperor, they held high expectations on King Gojong and launched a campaign to promote Confucianism. Contrary to expectations, however, Gojong did

not take any measures to promote Confucianism. Confucian scholars were not able to show their cohesion, and the contents of 『Zonhwarok』 and 『Daedongjeongno』 remained at the level of adhering to traditional Confucianism. As a result, the respect movement ended without any practical effect. Disappointed by this, Confucian scholars seeking an ideological transformation appeared. Among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Confucianism promotion movement, several persons became enlightenmentists. Confirming this movement is a new research task.

Key Words : Hoseo Confucian Scholars, Confucianism promotion campaign, Civilization, 『Zonhwaroke』, 『Daedongjeongro』